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김진아(상명대학교)**

장석진(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 타인인정추구가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2017년 5월 20일~26일까지 현재 SNS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384명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타인인정추구 및 SNS 과몰입 경향성 모두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타인인정추구는 SNS 과몰입 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타인인정추구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은 타인인정추구를 통해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SNS 과몰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건강성과 타인인정추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에 대한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가족건강성, SNS 과몰입 경향성, 타인인정추구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였음.

** 제1저자: 상명대학교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schang@smu.ac.kr)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소통하기 원하며, 이를 넘어 상대에게 이해와 인정,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Carnegie&Associates,2011). 타인과 소통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로서, 외부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형성한다(Adler,1958). 특히 서구에 비해 동양인은 관계 중심적이며 그중 한국인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되는데(Kawanishi, 1992; Lin,1981; Tata & Leong, 1994; 조운경, 2003; 최상진, 김기범, 2011), 이러한 관계중심적인 특성은 최근 SNS사용경향성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구축해서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개인 웹페이지이다. SNS 상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용자간의 관계가 누적되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가 확대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손꼽힌다(정유진, 배국진, 2007; 김지혜, 2014).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밝혀진 SNS의 사용목적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기존 지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맺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며 영향력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하지만 SNS의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위해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SNS 사용자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심각성 역시 대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미디어패널(2015)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6.8%였던 SNS 사용자가 2015년에는 43.1%로 3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사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력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SNS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과 SNS에 과시하기 위한 과소비, 타인의 SNS를 보며 갖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 역시 SNS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SNS의 부정적 사용으로 인해 ‘페이스북 중독장애(Facebook Addiction Disorder)’, ‘디지털 피로감(Digital fatigue)’ 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고, SNS 과몰입적 사용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는 어플이 개발되는 등 SNS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SNS 사용실태 보고에 의하면(한국미디어패널, 2015; 김윤화, 2016), 최근 들어 SNS의 사용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스마트폰과 테블릿pc 등으로 인해 SNS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며 SNS 사용자의 연령대는 20대가 75.6%로 가장 높고, SNS 최대 이용 직업군은 학생으로 타 직업군에 비해

2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별에 따른 SNS 사용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선행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남성에 비해 여성이 관계지향적인 욕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강지혜, 2013; 김윤희, 2015).

한편, 가장 높은 SNS 이용자인 20대 대학생은 Erikson(1959)의 발달단계 중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직업의 선택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성을 이루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는다. 친밀성이란, 타인과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 친밀감, 공동의식이나 연대의식과 같은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형성되어 상호 헌신적 관계를 통해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과의 친밀성을 형성하지 못하여 고립되고 자신에게만 몰두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외로움, 소외감을 가질수록 가상 공간인 SNS에 몰입하고 결핍을 해소하고자 피상적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경향성이 있다(정수인, 2014; 김미영, 2015). 특히 현재의 20대는 취업을 위해 타인과의 경쟁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SNS와 같이 자유롭게 접촉 가능한 미디어에 대한 중독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중운, 박태은, 2016).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과 수용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Maslow(1954)에 의하면 자기존중의 욕구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로 본다. 반면, 타인인정추구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와 인정을 긍정적으로만 평가받기 위해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자 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Martin, 1984; 이정은, 2011). 선행연구결과 타인인정추구는 사회적인 수행불안과 우울, 불안에 영향을 주며, 삶의 만족수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하연, 조용래, 2012; 김나래, 이기학, 2015; 유미숙, 2015). 특별히 타인인정추구는 SNS 과몰입 경향성에 대한 주요변인으로 보고되는데(조다현, 2014; 송기선, 2014; 정수인, 2014; 김선미, 서경현, 2015; 박정순, 2016; 원소희, 서경현, 2016; 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은 타인인정추구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게시물 업데이트 횟수가 많고,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 통해 볼 때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들의 SNS의 문제적 사용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

한편, SNS 이용에 대한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력에 주목해 온 최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애착을 보일수록 SNS에서의 자기표현욕구가 과도하게 높고 부모와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SNS 과몰입 경향성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안수빈, 2013; 차민지, 2015; 오경임, 2016; 권여은, 이지민, 2017). 이처럼 가족변인은 SNS 사용 및 과몰입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SNS 과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SNS 이용 동기, 자아존중감, 자기애성 성격장애 등과 같이 개인 심리적 변인 및 사회불안, 대인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피승정, 2012; 이경미, 2014; 이

인숙, 조주연, 2012; 이은지, 2015; 김지혜, 2016; 이영미, 2016). 특히, 가족과 관련된 변인 중 가족건강성은 SNS 과몰입과 유사한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인터넷 중독, 도박문제 등 행위중독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김정은, 2013; 한은영, 김정신, 2015; 황영애, 2016; 정수연, 2014),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건강성이란, 가족과 건강의 합성어로 가족연구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개념이다(유영주, 2006; 정수연, 2014). 유영주(1995)는 건강가정을 개인의 건강에 비유했는데, 개인의 건강함을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이 강한 것을 의미하듯, 가족이 외부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가족을 건강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조희금, 2005). 가족건강성은 결혼관, 가족간의 긍정적 의사소통, 우울, 자기효능감, 행복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임수빈, 2016;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 2013; 강부자, 최연실, 2016). 나아가 건강한 가족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건강한 자기상을 확립할 수 있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감과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윤정, 엄윤재, 2016). 그렇기에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지지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 반면(신희수, 안명희, 2013), 가족 내에서 건강하지 못한 자기상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건강성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여학생이 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성별과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밝힌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일관되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박혜림, 2012;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 2013; 유진이, 2013).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대학생의 지나친 타인인정추구는 결국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의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SNS 과몰입 경향성과 가족관련 변수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타인인정추구가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인정추구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과 경로를 밝힌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가 매개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대학생들의 SNS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가족변수인 가족건강성이 타인인정추구를 통해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건강한 SNS 문화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SNS 과몰입 경향성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상담 장면에서 SNS 과몰입의 원인이 되는 타인인정추구와 가족건강성을 인식하여 가족 상담적 접근을 통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SNS의 과몰입 경향성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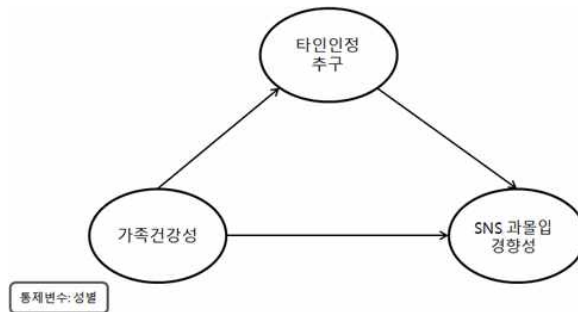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타인인정추구를 매개로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SNS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계청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및 자료 유사성을 갖추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 업

체를 통해 2017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6일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16부를 제외하고 최종 384부(96%)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의 특징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3세로 성별은 남성 181명(47.1%), 여성 203명(52.9%)으로 비율이 유사하였다. SNS 사용관련 특성을 보았을 때 SNS 주 접속기기는 컴퓨터가 16명(4.2%), 스마트폰 366명(95.3%), 태블릿 PC 2명(0.5%)로 응답하였으며, 사용경험이 있는 SNS 종류를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중응답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 270명(27.3%), 페이스북 362명(36.6%), 카카오톡 196명(19.8%), 트위터 162명(16.4%)으로 페이스북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SNS 로그인 횟수는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8명(72.4%), 주 5회 이상 35명(9.1%), 주 3~4회 39명(10.2%), 주 1~2회 21명(5.5%), 월 3회 이상 4명(1%), 거의 접속하지 않음 7명(1.8%)으로 매일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에 대한 응답은 30분 미만 86명(22.4%), 30분 이상~1시간 이하 103명(26.8%), 2시간 이상~3시간 이하 58명(15.1%), 3시간 이상 45명(11.7%)으로 조사되었다. 30분~1시간 이상 사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측정도구

가. 가족건강성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건강성 측정을 위해 유영주외 3명(2013)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KFSS-Ⅱ)’를 사용하였으며,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의 5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Likert 5점 척도이며, 각문항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4$ 였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가족탄력성 Cronbach's $\alpha = .937$, 상호 존중과 수용 Cronbach's $\alpha = .919$, 질적유대감 Cronbach's $\alpha = .888$, 경제적 안정과 협력 Cronbach's $\alpha = .858$,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Cronbach's $\alpha = .787$ 로 확인되었다.

나. SNS 과몰입 경향성

대학생의 SNS 과몰입경향성 측정을 위해 정소영과 김정남(2014)의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척도’를 사용하였고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의 총 4개 하위요인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이루어진 Likert 4점 척도이며, 각 문항의 응답 점수를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SNS 과몰입 경향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0$ 였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Cronbach's $\alpha = .887$, 몰입 및 내성 Cronbach's $\alpha = .838$, 부정 정서의 회피 Cronbach's $\alpha = .853$,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Cronbach's $\alpha = .830$ 으로 확인되었다.

다. 타인인정추구

대학생의 타인인정추구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MLAM을 1984년 Martin이 개정한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이하 RMLAM)을 이정숙(2010)이 한국문화에 맞도록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이루어진 Likert 5점 척도로, 응답 점수를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9$ 였다.

4. 분석방법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 사이에서 타인인정추구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SPSS Statistics 23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SNS 사용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변인인 가족건강성,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련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차를 산출하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를 검증하고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선정하여 검증하였으며 나아가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고자 경쟁모형을 선정하여 변인들간에 χ^2 및 CFI, NFI, TLI, RMSEA, SRMR을 고려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

트랩(Boot-strap)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은 표본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해 신뢰구간을 구하기에 신뢰구간 사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Shrout, Bolger, 2002; 유나, 2016). 본 연구에서는 500번 반복추출 한 샘플에 대해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는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의 평균 3.46, 타인인정추구 3.09, SNS 중독경향성은 1.96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타인인정추구와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인정추구와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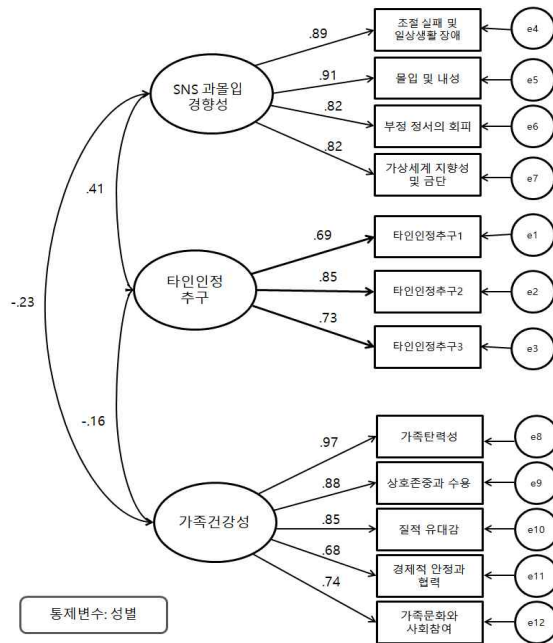
(N=384)

하위 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959**	1										
3	.897**	.868**	1									
4	.901**	.819**	.743**	1								
5	.744**	.653**	.604**	.554**	1							
6	.804**	.705**	.566**	.771**	.545**	1						
7	-.207**	-.213**	-.204**	-.167**	-.159**	-.132**	1					
8	-.137**	-.161**	-.196**	-.069	-.131*	.013	.346**	1				
9	-.116*	-.135**	-.167**	-.063	-.113*	.021	.334**	.919**	1			
10	-.097	-.125*	-.130*	-.032	-.122*	.024	.320**	.924**	.825**	1		
11	-.174**	-.185**	-.245**	-.108*	-.119*	-.046	.333**	.869**	.710**	.711**	1	
12	-.114*	-.141**	-.176**	-.052	-.116*	.044	.238**	.864**	.689**	.738**	.743**	1
평균	3.46	3.56	3.76	3.24	3.60	2.91	3.09	1.96	1.94	2.05	2.00	1.80
표준 편차	.82	.90	.87	1.01	.95	1.00	.43	.58	.68	.61	.69	.62
왜도	-.27	-.35	-.59	-.26	-.39	.06	-.08	.19	.22	.08	.33	.50
첨도	-.36	-.27	-.02	-.57	-.5	-.62	.31	-.70	-.83	-.74	-.49	-.56

1. 가족건강성 전체요인 2. 가족탄력성, 3. 상호존중과 수용 4. 질적유대감, 5. 경제적 안정과 협력, 6.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7. 타인인정추구, 8. SNS 과몰입경향성 전체요인, 9.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10. 몰입 및 내성, 11. 부정정서의 회피, 12.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2. 측정모형 검증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경향성의 매개관계를 검증하고자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인인정추구의 척도가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가정해 사용하여기에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표 변수가 2개 이상임을 고려해 변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였다(우종필, 2012; Bandalos, 2002).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35.808(51)$, $p=.000$ 으로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해 CFI, TLI, NFI, RMSEA, SRMR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CFI=.942, TLI=.925, NFI=.927, RMSEA=.097, SRMR=.049로 나타났다. 적합도의 판정 기준 결과 권장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나 CFI, TLI, NFI, SRMR이 권장기준을 충족하기에 모델 수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ir et al. 1995). 구체적인 사항은 그림 2,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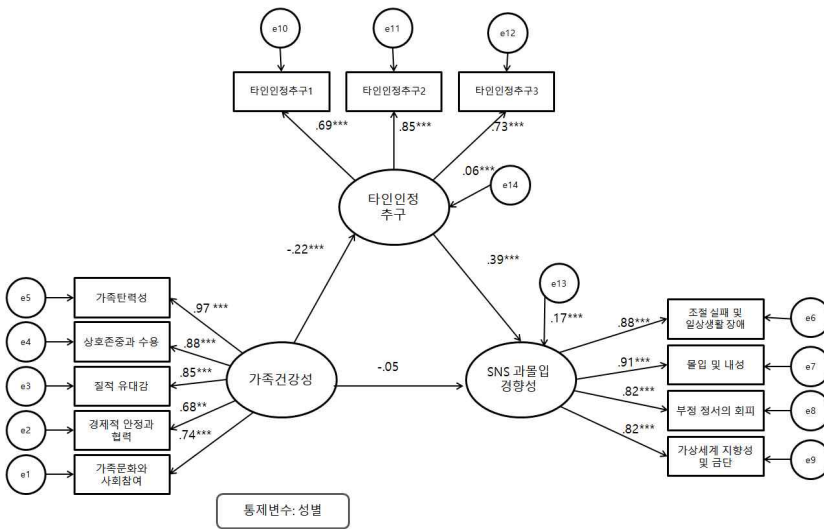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NFI	RMSEA	SRMR
측정 모형	235.808***	51	.942	.925	.927	.097	.049

*p<.05, **p<.01, ***p<.001

3.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타인인정추구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지수인 χ^2 은 261.980($p<.001$)이었으며 적합도는 $df=60$, CFI=.937, TLI=.918, NFI=.920, RMSEA=.094, SRMR=.048로 나타나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에 대한 연구모형(부분매개)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NFI	RMSEA	SRMR
연구모형	261.980***	60	.937	.918	.920	.094	.048

* $p<.05$, ** $p<.01$, *** $p<.00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에서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구조경로	Estimate		S.E	C.R	p
		B	β			
연구 모형	가족건강성 → 타인인정추구	-.091	-.218	.025	-3.674	***
	타인인정추구 → SNS과몰입경향성	.757	.386	.120	6.316	***
	가족건강성 → SNS과몰입경향성	-.040	-.048	.043	-.922	.357

*p<.05, **p<.01, ***p<.001

4.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사이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표 6과 같이 정리되어있다. 분석결과 원자료(N=384)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500개의 경험적 표본에서 얻어진 매개효과는 .781(p< .001)이었으며,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타인인정추구를 거쳐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가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타인인정추구를 거쳐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매개관계가 성립된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최종모형 총 효과 분해

구조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 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총효과
			하한	상한	
가족건강성(타인인정추구) → SNS 과 몰입 경향성	-	-.084	-.142	-.036	-.034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타인인정추구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 종합 변수, 타인인정추구, SNS 과몰입 종합 변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건강성과 타인인정추구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타인인정추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몰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행연구(김연희, 2013; 신희수, 안명희, 2013; 변경란, 2015; 서은혜, 2016)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가족을 건강하지 못하게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부족한 자기 확신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을 원하고 부정적 평가는 두려워하는 타인인정추구가 높아지며,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하는 대학생은 건강한 자기상이 형성되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 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SNS 과몰입 경향성 종합 변인과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질적 유대감과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는 SNS 과몰입 경향성의 전체요인, SNS 과몰입 경향성 하위요인 중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과는 관련 없으나 그 외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SNS 과몰입 경향성과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가족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의 영향은 SNS 과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보경, 2014; 김지현, 2015; 공정현, 김세루, 오은진, 2015; 오경임, 2016; 권여은, 이미진, 2017)와 같은 결과로, 가족이라는 환경적 변인이 SNS 과몰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즉,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하는 대학생은 SNS 사용에 있어 자기 통제력이 높아 과몰입하지 않고 건강한 사용이 가능하나,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하지 못하는 대학생의 경우 가족으로 인한 결핍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에 어려움을 보이고, 그로인해 SNS에 과몰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선행연구에서 과몰입으로 문제 현상이 드러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마찬가지로 SNS 역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인정추구와 SNS 과몰입 경향성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밝혀졌는데, 타인인정추구가 높을수록 SNS 과몰입 경향성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조다현, 2014; 송기선, 2014; 정수인, 2014;

김선미, 서경현, 2015; 박정순, 2016; 원소희, 서경현, 2016; 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의 결과와 일치해서,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고자 이상적 자기상을 SNS에 게시하며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하고, 게시물을 더 자주 업데이트하며 다른 사용자의 SNS를 빈번하게 확인한다고 밝힌 선행연구(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결국, 타인인정추구가 높은 사람은 자기 확신이 부족해 타인에게 지지받고 인정받기 원하며, SNS상에서 자신의 이상적 모습만을 보이고, 동시에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 부족한 자기 확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다수의 타인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SNS는 타인인정추구를 채우기 위한 가장 좋은 장이되므로 SNS 상에서 게시물을 업데이트하고 타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아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간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 한 결과, 타인인정추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건강성을 구성하는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5개의 하위요인 모두 타인인정추구를 매개하여 SNS 과몰입의 특성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증상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건강한 자기상을 형성하지 못해 타인인정추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김연희, 2013; 신회수, 안명희, 2013; 변경란, 2015; 서은혜, 2016)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를 타인인정추구가 완전매개 한다는 것은,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가족건강성이 타인인정추구를 통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인정추구에 의한 간접효과가 환경적 요인인 가족건강성의 직접효과가 상쇄 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SNS 과몰입 경향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 = -.14, p < .01$)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완전매개효과는 타인인정추구에 의해 발생한 간접효과의 해석이 강조되기에 타인인정추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타인인정추구가 강할수록 타인에게 수용되기 위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SNS를 통해 인정받는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송기선, 2014; 김선미, 서경현, 2015; 원소희, 서경현,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인인정추구가 SNS 과몰입 경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강선희, 정남운, 2002; 조다현, 2014; 송기선, 2014; 정수인, 2014; 김선미, 서경현, 2015; 박정순, 2016; 원소희, 서경현, 2016;

Mehdizadeh, 2010; Panek, Nardis, & Konrath,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그 결핍을 채우고자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은 피하고, 긍정적 피드백만을 원하는 높은 타인인정추구경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결국 SNS의 주사용 목적인 기존 지인들과의 관계 강화 및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형성과 같은 관계맺음의 목적보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감을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생들의 SNS 과몰입 경향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거나 이용 동기와 같이 개인 내적인 부분에 주로 집중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환경적 변인인 가족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었다. 즉, 가족건강성의 결핍으로 인해 건강한 자기상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타인 인정을 과도하게 추구하며, 그 결과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는 보다 포괄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SNS 과몰입 경향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내적 변인에 대한 연구보다 가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변인인 가족건강성과 개인내적 변인인 타인인정추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NS 과몰입 경향성 대상자로 조사대상자를 한정하지 못하고,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응답자들의 SNS 과몰입 경향성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SNS 과몰입의 경향성일 뿐이며 병리적 수준의 SNS 과몰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SNS 과몰입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과몰입 경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횡단적 연구를 통해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의 SNS 문화는 급속한 변화로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지 않을 문화로 판단되며 그로인한 SNS 과몰입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그렇기에 시대에 따른 SNS 과몰입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SNS 과몰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가족변인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후속 연구에서는 SNS 과몰입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가능성이 있는 가족변인들에 대해 보다 탐색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SNS에 과몰입 하게 되는 원인이 개인 내적요인, 가족 요인, 환경적 특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NS 과몰입 경향성의 영향 및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가족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해 성장기시기에 가족 안에서 건강한 자기상을 확립하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 자기불안과 불확신으로 인해 타인을 통해 결핍된 인정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타인인정추구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지 못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가족건강성과 같은 환경적 변인이 타인인정추구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타인 인정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기존 지인들과 관계 강화 및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이라는 보편적인 SNS의 주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SNS를 통해 타인인정추구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그로인해 SNS 과몰입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는 SNS 과몰입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SNS 과몰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타인인정추구가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SNS 과몰입 경향성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역방향적인 탐색을 하여 SNS 과몰입 경향성에 원인이 되는 요인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SNS 과몰입 경향성에 대해 호소하는 경우 가족건강성과 타인인정추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담자는 SNS 과몰입 경향성에 대해 보다 치료적으로 유용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SNS 과몰입 경향성과 타인인정추구의 감소를 위해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해 가정과 사회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SNS 과몰입 경향성 예방을 위한 교육에 효과적 개입과 대학생의 올바른 SNS 사용과 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부자, 최연실 (201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3(3), 71-90.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14(4), 969-990.
- 강지혜 (2013). 남녀 중학생의 대인불안과 자기제시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정현, 김세루, 오은진 (2015).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SNS 중독경향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인문사회21**, 6(4), 99-115.
- 권여은, 이지민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2), 17-29.
- 김나래,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인정욕구, 사회적지지, 사회불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4), 245-264.
- 김미영 (2015).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인간 고찰. **사회복지경영연구**, 2(2), 27-42.
- 김보경 (2014). 성인애착이 스마트폰 및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연희 (2013). 자기애 취약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타인인정추구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화 (2016).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추이 및 이용행태분석. **KISDI STAT Report**, 16(7).
- 김정은 (2013). 대학생 도박문제의 주요 영향요인: 건강위험행동과 가족건강성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운, 곽태은 (2016). 전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1055-1075.
- 김지현 (2015). 20대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자의 가족체계기능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14). 대학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위험 관련 요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순 (2016).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 :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림(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결혼 이미지와 결혼 기대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경란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

- 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혜 (2016). 학력기 아동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기선 (2014). 20대의 SNS 중독경향성과 불안정 성인애착, 외로움, 인정욕구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 (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79-598.
- 송진숙, 이영관 (2007). 대전지역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가족여가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여가 만족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2), 183-194.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수빈 (2014).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임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자기노출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출판사
- 원소희, 서경현 (2016). 청소년의 자기중심성 및 인정욕구와 스마트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9), 255-274.
- 유미숙 (2015).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건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유영주 (2006). 연구논문: 한국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변화- 문제와 전망. **여성가족 생활연구**, 10, 51-75.
-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II(KFSS-II)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13-129.
- 유진이(2013).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2013(1), 219-237.
- 이경민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지(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16).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17(12), 561-568.

- 이인숙, 조주연 (2012). 대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23-2633.
- 이정숙 (2010).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 경험의 매개역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1). 인정욕구에 대한 철학적 성찰. **연세철학**, 10(12), 223-250.
- 임수빈 (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하연, 조용래 (2012).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신념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사회적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지**, 12(3), 299-313.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정수연 (2014). 남·여 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가족건강성이 인터넷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인 (2014). 중학생의 외로움과 내현적 자기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배국진 (2007).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동향과 전망. **Emerging Issue Report**, 1-59.
- 조다현 (2014). SNS 중독경향성과 병리적 자기에, 정서표현성, 친구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 조희금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1), 7-14.
- 차민지 (201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대인관계 성형의 매개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기범 (2011). **문화심리학: 현대 한국인의 심리분석**. 파주: 지식산업사.
-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연구팀 (2015). 2015년 미디어 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KISDI STAT Report**, 15(17).
- 피승정 (2012).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 중독 가능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차이.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영, 김경신 (2015).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스마트폰중독경향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5(5), 275-275.
- 황영애 (2016).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 요인 연구: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ler, A. (1958).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New York: Capricorn
- Cole, B. (2012).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in the digital age*. 최염순

- 역 (2012). **SNS 시대의 카네기 인간관계론 : 인간의 본성과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18-164.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 - 1168.
-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L Harverd University Press.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90-10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es with reading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Kawanishi, Y. (1992). Somatization of Asians: An artifact of western medication?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29, 5-36.
- Lin, K. M. (1981). Traditional Chinese medical beliefs and their relevance belief and their relevance for mental illness and psychiatry. In A. Kleinman & Lin(Eds), *Normal and Abnormal Behaviors in Chinese Culture*(pp. 95-111). Dordrecht: The Netherlands: D. Reidel.
- Martin, H. J. (1984). A revised measure of approval motiv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5), 508-519.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Evanston: Publishers.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 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 Panek, E. T., Nardis, Y., & Konrath, S. (2013). Mirror or megaphone?: How relationships between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site use differ on facebook and twitt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5), 2004-2012.
- Tata, S. P., & Leong, F. T. L.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논문 접수: 2018년 7월 31일

논문 심사: 2018년 8월 21일

게재 승인: 2018년 9월 10일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trengths and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among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Validation from Others

Kim, Jin ah(Sangmyung University)

Chang, Seok Jin(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trengths and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validation from other people has the mediating effect on both variables above.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for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who currently use SNS from May 20 to 26,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ed. First, as analyzing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s perceived college students,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and validation from others, it shows that the overall correlation was high. It has been revealed that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validation from others and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Conversely, validation from others i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This means, the more college students perceive family strengths, the less they seek to be validated from others and tend to overindulge in SNS. The more they need to have validation from others, the more they come to have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trengths and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after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validation from others, it is revealed that validation from others has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It shows that family strengths affect SNS overindulgence proneness by pursuing other people's valid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SNS overindulgence, the cause-and-result relationships within variables, such as family strengths and validation from others, a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expected to provide the primary data of interventions that could improve the counselling effectiveness. Lastl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has discussed the proposal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bout the education and counselling.

★ **Key words:** family strengths, validation from others, SNS overindulgence proneness